

켈트의 여명과 배설: 조이스와 민족주의

이 인 기

아일랜드에서 민족주의는 반식민지적 의지의 결집과 민족 계몽의 이상을 실현하는 통로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 의식을 확립하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로 삼은 켈트의 여명은 그 이데올로기의 제반 양상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서 기능하였다.

조이스는 당시 사회에서 이 같이 지배 담론을 형성하고 있던 민족주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의 태도에 관해서는 그의 무역사성과 비정치성이 비평적 숙어로서 통용되어 왔다. 더구나 그가 구사한 문체의 해학성 때문에 비록 그가 비판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판의 통렬성이 중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관한 한 그가 엄정한 비판의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그의 문체가 지닌 해학성은 오히려 그 비판에 통쾌함을 부여하고 있음을 규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그가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똥이나 오줌에 비견함으로써 그 지배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였고 그것도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동족이 그의 비판에 공감하도록 하였다고 본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관한 담론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클롭스” 장을 중심으로 그가 똥이나 오줌에 비견한 민족주의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천착할 것이며 그 똥오줌이 문체상 수반하는 비판적 효과와 해학적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이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전개 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그가 보이는 문학적 수용을 파악하며 그가 구사하는 문체상 전략의 한 구체적 적용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민족주의 담론과 반유태주의

아일랜드에서 정치 세력으로서 민족주의의 기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840년대 “청년 아일랜드 운동”부터이다. 본격화된 시점은 1891년 파넬의 죽음 이후인데, 이 사건은 정치사에서 준동하던 배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민족 정체 의식의 확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켰다. 1892년 4월 9일자 “통일 아일랜드” 신문을 보면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자존심 있고 자주적이며 진정으로 독립된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국화의 과정을 막아야 한다. 그 과정은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이 경악할 정도의 속도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확연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Kelly 15).” 언론의 이 같은 선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족주의는 당시 사회의 지배 담론이 되었다.

그러나 조이스는 그 지배 담론에서 외눈박이 거인 사이클롭스의 형상을 읽었다. 사회에 만연한 민족주의의 기운이 그 거인의 우둔하고 편협한 성향을 닮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인물들로서 제시한 시티즌의 동아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 무관심하기도 한 일’에 대해서 힘주어 과장된 언설을 늘어놓는 모주꾼들(Peake 235)이다. 그들은 그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의 관념과 행태의 본질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회화인 것이다. 조이스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그들의 언행을 묘사함으로써 지배 담론의 허상을 비판하였다.

바니 키어난즈 술집에 모여 있던 그들은 ‘진정한 민족주의자들’답게 민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였다. 그들과 블룸과의 언쟁에는 마치 헤인즈가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같은 민족임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유태인 혈통의 블룸이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그에게 민족을 정의해보라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확신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방인인 그가 그들 앞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민족을 ‘같은 장소에 사는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했을 때도 웃어댔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시켰을 때도 역시 놀려댔다(U 12. 1422-29).

그러나 이러한 확신에 찬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납득할 만한 정

의를 개진하지는 못했다. 블룸의 정의를 비웃었지만 그들은 장황하고 강고한 주장만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공통의 혈통과 언어 및 역사의 공유 여부를 민족 구성의 중요한 원칙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블룸을 압도할 만한 정의를 그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실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듯이, 그들이 거론한 원칙들은 아일랜드적 상황에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었다.

블룸이 민족을 지역적인 한계에서 정의한 것은 자신의 종족적인 자의식 때문일 수가 있다(Snead 232). 그러나 그의 자의식과는 상관없이 혈통 및 종족적 유사성이란 민족의 의미 규정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당시 더블린 시민의 20%는 영국계였으며 더구나 시장은 나네티라는 이태리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네간의 경야』의 주인공 이어위커가 스칸디나비아계이지만 아무런 이질감 없이 지내듯이 더불어 섞여 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실명 인물인 나네티처럼 ‘아일랜드인들보다 더 아일랜드적(U 7. 100)’인 인물들이 많았다. 굳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종족적 계열로 따지자면, 그들은 앵글로색슨족, 데인족, 노르만족, 퍼블그족, 밀레지어스족 등이 동화되어 살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혈통상 민족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Renan 14).

공통의 언어와 유산 또한 결정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 민족의 의미를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견해대로 ‘토착적’이라는 말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블룸의 정의는 그 의미에 사실상 부합한다. 그는 ‘여기서 태어났다(U 12. 1431)’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상황적으로 그가 언어와 문화 유산을 그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언어와 문화 유산을 영국에 강탈당한 뒤 영국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것의 공유 여부로 민족의 개념을 한정하는 것은 상황상 오류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정통성의 기원을 유현한 과거에 고정한 조처도 정통성 설정의 자의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책동일 수가 있다(Brennan 45).

그런데 마지막으로 역사의 고통에 대한 집단적 공감대는 민족 구성의 견인적 요인이 될 수 있다(Renan 19). 식민지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이 민족적 결속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블룸이 비록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기는 했어도 그들이 품은 역사에 대한 유전적인 울분을 사실상 갖고 있지 않은 점은 그가 같은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온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불롬 만큼도 역사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술집에 늦게 들어온 마틴 커닝엄은 아일랜드 정청에 근무하는 부역자이고, 크로프톤은 프로테스탄트로서 합병주의자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미 영국화된 생활 습속과 사고 경향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에, 역사상 프로테스탄트 우선 정책 때문에 동족의 대다수가 고통을 당했던 역사의 경험 속에서도 영국에 대한 저항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레이트이나 울프 토큰 그리고 파넬과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적 공감대 또한 민족의 의미 규정에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함을 알려 준다.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의미는 그들과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 살면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동질 의식을 가진 불롬을 굳이 배제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그 스스로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점은 그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Cheng 185). 그는 디념의 장지로 가는 장례 마차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 도드 영감의 인색함을 희롱함으로써(U 6. 290) 유대인을 전형화하는 경향에 '진지하게' 동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보호적인 조치(Bush 238)일 수도 있으나 그 자신도 나 네티의 진짜 조국이 이태리이며 아일랜드가 아니라(U 7. 87)고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그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처럼 아일랜드에 관한 한, 민족은 구체적인 정의를 시도할수록 상반되는 요소가 돌출하는 개념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민족이란 오히려 그러한 복수성을 포용하는 개념으로서 결국은 자기 정체가 사라져버릴 정도로까지 보편적인 의미를 떨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nead 232-3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롬을 결코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례 마차를 탈 때 커닝엄이 '우리는 이제 다 났지?(U 6. 8)'라고 확인한 후 불롬을 태운 장면은 불롬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롬이 자신의 동질 의식을 논증한다 해도 그는 이미 '웃기는 괴물(Bush 234)'로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수당한 무적단원 조우 브래디의 시신이 발기한 현상을 두고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들지 않고 그들처럼 '죽어서도 강하게 남아 있는 조국애의 열정(U 12. 463)'을 추앙하며 '죽은 자를 기념하여(U

12. 519)' 건배를 들거나, 시티즌이 영국에 대한 폭력 투쟁을 갈파할 때 그들의 울분에 동조하는 말을 한 마디만이라도 하거나, 혹은 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술을 한 잔씩 사 준다 하더라도 그는 역시 배척당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불륨을 유독 일관되게 배척하는 바로 이 태도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 구성의 실질적인 기준을 추정해 낼 수 있다. 그들은 반유태주의라는 기준에 따라 민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고한 시티즌이 불륨 앞에서 '저 놈들이 아일랜드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빈 대로 들끓게 했어(U 12. 1141-42)'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반유태주의의 예극화된 단면이다. 그리고 민족 투사 케빈 이간의 언행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족주의와 반유태주의는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는 드루몽을 유명한 언론가로 치켜세웠는데(U 3. 231), 이 행위는 드레퓌스 사건을 프랑스에 대한 반역적인 책동으로 규정한 언론인을 민족의 투사가 승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Fairhall 175-76).

그러나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지적한 대로 민족이 그들 나름의 기준에 맞추어 상상한 공동 사회라 하더라도, 반유태주의는 지극히 편향적이어서 민족의 개념을 규정할 만한 원칙이 될 수가 없다. 사실상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민족의 개념은 패거리 의식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아일랜드에 끼친 해악이 없음을 고려할 때, 유럽 민족주의의 유행을 온당한 이유도 없이 답습하는 무신경마저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이스가 재판 장면의 회화(U 12. 1111-40)에서도 암시하였듯이, 불륨이 그들의 민족인 덕넘 미망인과 그 자식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사취하는(U 12. 1622)' 인간으로 '기소되어 심리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은 비논리적이며 가혹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종족적 순수주의는 약자에게 운명적인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Cheng 215).

조이스는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의 행태를 똥이나 오줌 등 쓰레기에 비견하였다. 그들은 사실상 아무런 원칙도 없으면서 편협한 태도를 고집하였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 버려야 할 대상으로 간주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똥오줌과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그래서 그의 비판에서는 그의 익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비판은 두 가지 형상을 통해 제시된다.

첫째는 시티즌의 가래침이다. 시티즌은 블룸이 자신의 조국을 아일랜드라고 말했을 때 어떠한 논박이나 대꾸도 않고 구석에다 '레드 बैं크의 굴 같은 가래침(U 12. 1433)'을 뱉었다. 가래침을 뱉는 행위는 합당한 이유 없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완고함을 표상하므로 유대인을 배척하는 태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가 보기에 그런 태도는 가래침처럼 혐오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시티즌이 민족주의의 고귀한 명분을 설교하더라도 그에 게서 여전히 '칠칠맞게 똥구멍을 까고 돌아다니며(U 12. 752)' '가죽 공장 고양이처럼 온통 싸대고 갈겨대는(U 12. 1311-12)' 행태가 부각되도록 묘사하였다.

둘째는 바로 그 '싸대고 갈겨대는' 행위의 구상화로서 오줌 싸는 장면이다. 조이스는 "사이클롭스" 장의 내레이터가 블룸을 욕하는 행위와 소변보는 행위를 겹쳐 제시함으로써 민족주의의 반유대주의적 발상 자체를 배설과 동일시하였다.

잘 있거라 아일랜드야 나는 고틀로 가나니. 그리하여 나는 마당 뒤편으로 돌아가서 물 뿌려 갔는데 젠장 (5실링 넣고 100실링 벌었다지) 내가 발사를 하면서 ("드로우어웨이" 후에 20실링을 캐척하면) 내 물을 발사하면서 내 혼잣말인데 그 녀석은 불안했어 (조우한테서 500씨씨 두 잔 얻어먹고 슬래터리 점에서 500씨씨 한 잔 마셨지) 내심 술 한잔 씩 사려니까 말이야 (100실링이면 5파운드잖아) 그 식구가 거기 살 때 (약은 놈이야) 칠칠이 버크가 카드놀이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줬는데 애가 아픈 척하더라는 거지 (젠장, 한 말은 마신 것 같구먼) 방댕이 축 처진 마누라가 전성관에다 대고 말했다는 데 '개가 나아가요' 아니 '개개' (오우!) 그게 다 계획이야 그 녀석이 따면 판돈을 들고 튀어버릴 수 있을 거니까 (어휴, 짹 찻나 벼) 허가 없이 장사를 한 것도 그래 (오우!) 아일랜드가 내 조국이라나 (으익! 프으익!) 가당치도 않지 그런 염병할 (다 나왔어) 유대인 (아!) 놈들에게는. (U 12. 1561-72)

민족주의가 드러내는 배타성은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자기애, 나르시시즘의 표현일 수 있지만(Snead 235), 조이스가 보기에 반유대주의는 사실상 현실의 불만을 대리해소하기 위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같은 값싼 자기애에서는 오줌 냄새가 날 뿐이었다.

2.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민족이라는 용어는 그것이 배제하는 요소보다 포괄하는 요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는 반유대주의의 편협한 정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편협성은 영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영주의로 표출되었다. 스티븐은 동족을 일컬어 '영국과 그 문화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만 하면 마치 비밀 지령에 복종하듯이 본연히 들고 일어난다(PA 181)'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시티즌은 영국이라는 말이 나오자 영국이 자행한 고유 산업의 파괴와 대기근 때의 수탈 등을 예거하면서 격하게 비난하였고 좌중은 격앙된 적대감으로 동조하며 영국을 '인류의 적(U 12. 1249)'으로 매도하였다. 그래서 영국을 욕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마치 열광의 현상이 지나고 난 뒤 출현한 화난 귀신과 같았다(Kierman 42).'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열정은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친영적인 양상으로 변질되어 동족을 배반하기도 했다. 파넬의 기일에 선거 사무실에서 헨치 씨가 개진한 발언에는 조국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어떻게 배신으로 와전되는지가 암시되어 있다. 그의 발언의 요지는 자본의 차입을 통해 조국의 부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파넬의 죽음을 인정하고 영국왕 에드워드의 방문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왕 에드워드가 방문하면 투자가 확대될 것이므로 파넬식의 민족주의에 연연하여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조국의 부강을 위해서는 자본의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반영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의 노동운동 진영의 주장을 반영하는데(Fairhall 96-105),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그가 술머시 영국왕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한다(D 132)는 말을 해도 좌중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시각은 매수당해서 합병을 승인했던 전 시대 정치인들의 행태를 망각한 것이며 물량공세를 통해 독립의 의지를 좌절시키려는 영국의 저의를 읽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경우에 민족주의는 동족에게 오히려 배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성과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민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영국이 자행한 극한적인 폭압의 여파일 수도 있고 혹은, 파넬이 죽고 난 뒤 정가에 보수주의 진영과 노동 운동 진영 등의 분파가 생겨 갈등을 빚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파넬 사후 11년이 된 그의 기일에 헨치 씨의 주장이 암묵적인 동의로

받고 있는 것은 자본의 부족이 정치적 신념을 능가하는 현안이며 그 만큼 정가가 '진흙 발 신상의 교훈(U 16. 1329-30)'대로 지리멸렬해진 상태에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조이스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민족주의자들에게서 오히려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포착해 내었다. 사실, 폭력적인 적개심만 있을 뿐 정치적 좌표가 분명히 제시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조차 자신들을 억압하던 영국의 제국주의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가 묘사한 그들의 행태 속에는 권력과 이익에 집착하는 제국주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는 그들의 폭력성과 탐욕성이 모순되게도 동족에게 자행되는 사실을 고발하였다.

그는 그들이 역사의 파행 원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을 지목하는 행태를 여러 번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제국주의의 권력 중심적인 성향을 암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이 정복당한 책임을 '부정한 아내' 더보길라에게, 파넬의 몰락을 오세이 부인에게 전가하였는데(U 2. 392-94; 16. 1352-53), 이것은 그들이 블룸의 남자답지 못한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U 12. 1475; 12. 1658-59; 12. 1663)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민족주의가 남성중심적임을 나타낸다. 이 점은 그들이 제국주의의 관행대로 사회적 타자를 구별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장에서 지적한 반유태주의적 태도도 제국주의적 관행의 부산물이다. 이러한 태도는 민족주의 자체가 정통 아일랜드적인 요소로 강조함으로써 정통, 전통, 주권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인 담론을 구성하기 때문에 배태하게 된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비폭력 중도 노선 때문에 그도 호감을 가졌고 블룸과도 연계되던 민족주의 정치가 그리피스가 반유태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Nolan 21)이었던 것은 민족주의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조이스는 또한 이익을 탐하는 시티즌의 숨겨진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확인하였다. 시티즌은 영국의 수탈과 유대인의 탐욕을 비난하였지만 실제로 그 자신은 부재지주였다.

저 친구 목숨 한 번 걸어, 샤나골든에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내려가서 저 허황된 이야기를 떠버릴 수 있을 정도라니까. 원래 그는 그곳에서 코빼기도 내밀 수가 없거든. 물리 머가이어 단이 그의 뱃통에 바람구멍을 내놓으려고 그를 찾고 있기 때문이지. 그는 추방당한 소작인의 재산을 몰수해 있었거든.

(U 12. 1312-16)

그는 스스로 강고한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소작으로 연명하는 농민을 수탈한 죄목으로 다른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탐식성은 일상화된 것이었다. 그는 술집을 전전하며 술과 음식을 ‘등쳐먹으면서’ 좌중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U 12. 752-54). 그가 블룸에게 화를 내며 비스킷 통을 던진 것도 사실은 뒤에 술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에게는 술을 사지 않고 그들끼리만 시켜 마셔서 기분이 상해 있던 참에 블룸이 그 부아를 격발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아일랜드인에 의한 아일랜드인의 착취를 위해 아일랜드적인 아일랜드를 건설하려는(Kieman 45)’ 작업이라고 비판한 것도 민족주의자들의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블룸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U 12. 1237-38)’는 이율배반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영국의 폭압을 공격하면서도 스스로는 여성과 유대인을 폄박하였으며, 영국의 수탈을 비난하면서도 동족의 고혈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민족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그들에 대해서 조이스는 병자가 병자를 고치겠다는 수작을 떠올렸다. 앞 장의 오줌 싸는 장면(U 12. 1561-72)에서 보았듯이 내레이터는 시원스레 오줌을 누지도 못하는 의심스러운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를 위시한 시티즌 부류의 민족주의자들이 당시의 사회적 현안이던 소의 구제역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구제역은 ‘정치적 자본(CW 238)’으로써 그들의 탐식성을 은폐하고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조이스는 로버트 에미트가 죽은 이후 그를 숭앙하는 풍조에 대해서 냉소를 보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처형당한 투사의 내장은 자루 냄비에 담기고 고귀한 피는 우유 항아리에 담겨서 ‘고양이와 개의 합동 수용소’로 보내지는 격일 뿐이기 때문이다(U 12. 621-26). 그 풍조에 대해 그는 블룸을 통해서 방귀를 뀌어버렸다.

블룸은 “사이렌”장에서 식당을 나온 뒤 옛날에 관계를 가졌던 매춘부를 피하기 위해 라이오넬 마르크스의 골동품점 진열창을 두리번거렸다. 그 진열창에는 에미트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 마지막 말을 볼 때 그는 좀 전에 마신 버건디 때문에 방귀가 마려웠다. 마침 전차가 지나가는 순간 이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질이블룸, 반질이블룸은 마지막 말들을 바라보았다. 살짝. 지상의 국가들 중에
피시시.

버건디가 분명해.

픽! 이런. 시시.

나의 조국이 제대로 섰을 때. 뒤에 아무도 없지. 그 여자는 지나갔어. 그때
가 되어서야만. 전차가 철컹 철컹 철컹. 좋은 기회가. 오는 군. 철컹철컹철
컹. 버건디 때문인 게 분명해. 그래. 하나, 둘. 나의 비문이. 철크르르. 씹어
지게 하라. 나는

피시피시피시시.

다 이루었다 (U 11. 1284-94)

그러나 조이스가 블룸으로 하여금 애국 투사의 숭엄한 마지막 말을 읽으면
서 방귀를 끼게 했다고 해서 그 투사의 열정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블룸이 읽고 있는 것은 그 열정이 문자화되어 진열된 형체이므로 블룸의
방귀는 이미 에미트의 열정과는 다르거나 배반하기까지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선전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블룸이 마침 지나가는 전차의 소음을 이용
하는 것은 방귀 소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그 풍조에 대해 전차의 굉
음 같은 방귀를 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이스는 그 마지막 말이 십자가
에 박힌 예수의 가상칠언을 연상시킬 만큼 숭엄하게 선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팔약근의 긴장 조절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동작을 병치시켜 웃음을 유
발하고 있다.

3. 문화적 국수주의

살펴보았듯이 조이스는 민족주의를 제국주의의 반사 이미지로 규정하였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이율배반성을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회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던 민족주의적 문화 기획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포착해 내었
다. 이 운동은 켈트의 여명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
었으나 조이스가 보기에 낭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았다.

민족의 통합을 위한 계몽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었던 문화 기획들은 언론의
민족 의식 계발 홍보, 고대 아일랜드 운동 경기의 복고, 아일랜드의 고유어인
게일어의 공용, 민족 의식 고양을 위한 극작품의 상연 등이 있었다. 조이스는

이러한 기획들의 전개 과정을 주로 시티즌의 행태를 통해 형상화하였다.

첫째, 시티즌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에 열렬하였다. 그는 조국의 역사적 영웅들을 추앙하고, 영국이 침탈하기 전의 조국의 화려하고 풍만했던 산업과 자연 환경을 흠모하였다. 그의 웅변 속에는 신의 도움으로 위대한 조국이 회복되기를 회구하는 지복천년설 및 구세주 강림설 등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U 7. 828-69; 12. 1373).

둘째, 그는 민속 경기의 우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실존 인물인 마이클 쿠색을 모델로 하였는데, 쿠색은 ‘종족의 발전을 위하여 체육을 진흥하고 고대 아일랜드의 운동 경기를 부활(U 12. 899-901)’시키려는 목적 아래 1884년 “게일 체육 연맹”을 설립하였었다. 그 연맹은 고대 경기를 복고하는 일에 주력하여 테니스와 하키 등 당시에 유행하던 영국식 경기를 거부하고 고유 의 혈령이나 투석을 장려하였다. 시티즌은 영국식 경기를 샌님들의 놀이로 간주하였다.

셋째, 그는 이미 영어로 대체되어 사라져버린 게일어를 일상적인 대화에도 사용하였다. 그의 언행은 당시에 유행하던 게일어 부활 운동을 반영하고 있다. 1893년 결성된 “게일 동맹”은 게일어를 사용하는 연주회, 토론회, 사교 모임 등을 조직하여 게일어 부활을 사회 운동으로 파급시키고자 하였다. ‘아일랜드적인 아일랜드(SH 54)’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되살려야 했던 것이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신문들은 하나의 표제를 반드시 게일어로 표기하였고 주요 도시는 통신문들을 게일어로 작성하였으며 거리의 이름에도 게일어를 사용하였다. 쿠색은 게일어 학습을 하던 학생들을 모아 놓고 고대 경기의 복고 상황과 민족적 자부심을 고무시키는 자료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SH 61).

넷째, 시티즌은 영국의 문화와 예술이 아일랜드의 것을 절취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는데(U 12. 1199-1200), 이것은 민족 문학을 창출하려는 당시 문단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그들은 민족의 정기를 회복시킬 작품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아일랜드 문예 극장에서는 연일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들이 상연되었다. 이런 시류에 고무된 듯 1891년 2월 14일자 “통일 아일랜드” 신문은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도 독립의 의지를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신고 있다(Kelly 15). 예이츠는 이러한 현상을 아일랜드의 문예 부흥이라고 지칭하고 파넬의 몰락이 있는 1891년을 그 분기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작업들은 언론과 문단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사회 운동화하였다. 그러나 조이스가 보기에 그러한 계몽적인 기획들은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국수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 계몽의 궁극 목표인 문화적 보편주의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극히 편협한 지역주의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기획들은 현실을 낭만적으로 왜곡하고 있기도 했다.

첫째, 시티즌에 따르면 선조들과 역사의 영웅들이 밀리지어스의 건장함을 환기시키지만, 실제로 그들의 선조는 밀리지어스의 망토를 빌려 입은 난쟁이 퍼볼그죽(PA 180)에 불과하였다. 스티븐이 해변을 거닐며 먼 옛날의 선조들을 상상하였을 때, 그들은 기근, 역병과 살육에 찌든 왜소한 난쟁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U 3. 304-7). 그리고 그 자신도 인식하고 있듯이 그들의 굶주림은 현재에도 유전되어 시장끼 어린 트림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다(U 7. 860). 그들의 본래적인 모습이 이 같은 초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티즌은 과거의 영화를 낭만적으로 구성하였던 것이다. 영광스러운 과거는 그 영광을 공유하여 미래의 결의를 도출하게 하는 사회 자본이 될 수 있지만(Renan 19), 역사상 아일랜드가 한 민족으로서 영광을 구가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거론한 과거의 영광과 그것에 기반한 한 민족의 창성한 미래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그 영광을 위해 유대인을 배척하면서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을 민족의 구원 신화로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조이스가 삽입된 회문에서 표명한 대로, 손수건 위에 수놓아진 아일랜드의 역사적 명소가 다름 아닌 배설의 장소였던 것(U 12. 1447)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둘째, 쿠색이 영국식 운동 경기의 사악한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강조하며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전위가 된 것에 대해서, 조이스는 로취포드를 언급함으로써 그 주장의 허상을 폭로하였다: “선수용 속옷과 반바지를 입은 승자, 톰 로취포드가 민속 장애물 경주의 장애물 꼭대기에 다다라 허공 속으로 뛰어든다. 그의 뒤를 이어 경주자들이 때를 지어 달려와서는 뛰어든다(U 15. 4672-74).” 로취포드는 하수구 가스에 중독된 청소부를 구하러 간 구조대원 중의 한 사람인데, 가스 때문에 그도 겨우 목숨만 건진 사람이었다. 조이스가 이 사람을 아일랜드식 운동 경기를 구현한 사람으로 묘사한 것은 그것이 ‘끔찍한 운동’임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복고하려는 민속 경기들은 그 본질이 ‘거칠은 신체 기술(PA 180)’이어서 경기 중에 혈령 채로 사람 죽일 뻔하였거나 노나 저을 정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물인

과격한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달려간 종착점이 허공이라고 지적된 점에서는 이 같은 민속 경기 복고의 종국이 공허할 것이라는 예견을 읽을 수 있다.

셋째, 조이스는 게일어 부활 운동과 관련하여, 우체부가 게일어로 씌어진 주소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자기 상관에게로 가는 일이 잦았던 일화를 제시하였다(*CW* 156). 그리고 게일어를 문학 작품 속에 자주 사용한 싱을 조롱하면서(*U* 9. 556-67) 그의 인물들이 쓰는 말들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패트릭 캐버나(Patrick Kavanagh)도 싱이 게일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억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이스의 한 마디 말이 싱의 전 작품에 버금가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Smyth 111-12). 조이스는 “사이클롭스” 장에서 게일어를 인간의 언어로서의 품위도 갖지 못하는 ‘개소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거기서 게일어는 시티즌이 욕을 할 때나, 자신의 개와 이야기할 때 마치 오페라의 듀엣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이며, 거칠고 후음이 두드러진 언어(*CW* 156)로서 시를 낭송하도록 훈련된 개의 소리와 매우 흡사한 음성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회화화되어 있다(*U* 12. 719-23).

넷째, 조이스는 제반 문예 프로그램들이 목적문학적인 성향을 띠며 순수문학을 배척하였던 것(Kelly 5)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었다. 그가 보기에 당시의 문단은 현세의 유혹에 현혹되어 ‘시장의 우상(*CW* 185)’을 섬김으로써 자기기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관객의 폭동을 염려하여 작품을 손질했으며 결과적으로 관객의 취향에 맞는 조국과 민족을 발명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민족의 문학 자체를 ‘하녀의 금간 거울(*U* 1. 146)’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말았기 때문에 조이스는 소위 문예 부흥을 장려하던 예이츠의 활동을 ‘새인들의 짹 짹거림(the twattering of bards: *FW* 37. 17)’으로 폄하하였다. 그는 이러한 당대의 문단 풍토를 하수구에 내다버릴 쓰레기로 간주하고 정화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나 내가 말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도당을 위해 나는 하수구가 되나니.
그들이 그들의 공상에 젖은 꿈을 꾸도록
나는 그들의 구정물을 쏟아 보낸다
나만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니
그 일로 나는 나의 왕관을 잃고

위대한 어머니이신 교회가
 나를 심한 곤경에 빠뜨렸지만,
 이렇게 나는 그들의 겁먹은 똥구멍의 긴장을 풀어
 평화의 성직을 다하나니. (CW 151)

조이스는 이러한 문화 운동들의 전개 과정을 캐슬린의 행동에 빗대었다. 캐슬린은 “어떤 어머니”의 키어니 부인의 딸로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몇 마디 게일어를 구사하며 친구들과 민속 가요를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캐슬린은 아일랜드의 운명을 표상하는 인물의 이름이므로 그녀의 행위는 아일랜드 전체 시민들의 문화 의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행동은 민족주의 문화 운동이 진지하지도 철저히하지도 못한 흉내내기와 입신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시류에 편승하는 자들에 대해 조이스는 물리의 생각을 빌어 욕을 퍼부었다.

캐슬린 키어나와 껌껌거리는 패거리 이모 저모 이저모 계집애들 참새방귀
 같은 것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일에 대해서
 내 엉덩이만큼이나 알까 그러고도 웃기게서리 자기들이 아일랜드 국산 미너
 라고. (U 18. 878-81)

물리의 생각은 입이 건 중년 여성의 한바탕 욕질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통쾌하며 웃음이 꺼리끼지 않는다.

4. 조이스의 민족주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민족주의자들은 스스로도 ‘백색의 흑인(Nolan 21)’인 처지에 있으면서 유대인을 배척하였고 메시아 신화로 자신들의 고통을 미화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은 극단적인 반영 적대감을 토로하면서도 제국주의의 행태대로 동족을 수탈하는 이율배반을 저질렀다. 그러는 한편으로 그들은 문화적 주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 기획들도 추진하였는데, 그것들은 모두 편협한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모순에 싸인 행태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아무런 원칙도 없는 불안정한 담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의 열정은 결과적으로 원칙의 부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Peake 236).

조이스가 민족주의의 고상한 이념들을 주로 똥이나 오줌과 겹쳐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그의 비판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그는 민족주의자들의 기치인 켈트의 여명(celtic twilight)을 사실상 똥간(cul toilette)으로 간주하였다(cultic twalette: *FW* 344. 12). 그는 똥이나 오줌을 활용하여 선전에 의해 가려진 민족주의의 본질적인 면모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똥오줌에 집착하는 듯한 이러한 글쓰기의 태도는, 비록 그에게 분변강박증(cloacal obsession)의 혐의를 씌우기도 했지만, 제도가 선전하는 현란한 외형의 허상을 폭로하려는 문제상의 주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 혐의는 웰즈(H. G. Wells)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당시의 예법에 의해서 하수구로나 퇴출당했을 법한 조야한 단어들이 불쾌하게 산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처음 거론하였는데(Wells 86), 실제로 찌꺼기와 배설물을 활용한 비판은 그의 작품 전반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조이스가 두 개의 모순되는 대상을 겹쳐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상한 대상을 격하하는 비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격하게 격차가 나는 두 대상을 겹쳐놓음으로써 그는 비판의 통쾌한 작렬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티븐은 디지 교장의 과격한 민족주의적 발언을 평가하며 ‘영광스럽고 경건하며 영원한 기억(Glorious, pious and immortal memory, *U* 2. 273)’이라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은 표면적인 의미와는 달리 합병 찬성을 주도하던 친영파 단체의 신조이며 또한 그 두문자들이 ‘미친놈 온 몸으로 지랄떠는 짓(g. p. i.... General paralysis of the insane, *U* 1. 128-29)’의 두문자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겹쳐놓음으로써 그는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돈키호테식의 망상으로서(*U* 16. 1034) 그림자로 비친 뼈다귀를 물어채려는 것(*U* 16.1074-75)과 같은 허망한 작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격한 격차의 상대가 똥오줌이라는 사실은 조이스가 민족주의의 이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그가 현격한 격차를 위해 굳이 똥오줌을 이용한 것은 더불어 해학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보윈(Jack Bowen)은 그것을 ‘소화기관의 저속한 코미디’라 칭하였는데 똥오줌의 해학성은 그의 비판이 풍기는 도덕적 통렬성을 이완해 준다. 하지만 그 이완은 비판의 진의를 흐리기 보다 그 비판에 심정적인 동조를 이끌어낸다.

아일랜드의 중심 주제인 사랑과 전쟁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아일랜드인들의 정서에 매우 소중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화기관의 저속한 코미디와 결부시킴으로써 고상한 감정과 일상 생활 사이의 모순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owen 496-97)

이 지적은 “사이렌” 장에 관한 것이지만 ‘음악의 아름다움’을 민족주의의 고상한 정서로 대체하면 바로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의 태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그의 분변강박증적 문체는 현격한 격차를 이용한 강력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공감을 성취함으로써 그 비판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글쓰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희극적인 접침을 조이스 미학의 필수조건으로 간주하는 비평가도 있다(Smyth 142).

그렇다면 그가 이와 같이 자신의 작품에 ‘비위생적인 조건(Wells 87)’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동족이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보원의 지적대로 동족(독자)에게 ‘고상한 감정과 일상 생활 사이의 모순을 느끼게’ 하려는 창작 의도를 실제로 갖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 주변에 재구덩이와 오래 묵은 잡초, 그리고 찌꺼기 냄새가 감도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요. 내가 잘 닦아 놓은 거울에 아일랜드 인들이 자신을 잘 비추어 보지 못하도록 당신이 방해한다면, 그것은 아일랜드에서 문명의 발전 과정을 지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나는 진지하게 믿고 있소.

(Letters 1, 63-64)

이것은 그가 ‘동족의 도덕사’를 집필하면서 비속함을 꼼꼼하게 묘사하려 한 의도를 천명한 사실(Letters II, 134)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그가 경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과도하게(Sometimes... unnecessarily harsh: Letters II, 166) 동족을 질타한 것도 이러한 의도의 연장이다. 역사가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 자체가 불안정하고 일관성 없으며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역사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Smyth 10)고 판단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파국의 원인을 굳이 동족의 우행과 배신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그는 역사의 질곡을 초래한 두 사건을 거론하면서 영국의 정복이 ‘아일랜드의 요청’에 의해 초래되었고 또다른 사건인 의회의 합병도 아일랜드 의회가 가결한 사안이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CW 162). 이러한 의도성을 고려할 때, 그가 민족주의자들

을 피기하게 우스꽝스러우며 파괴적이나 능률은 없는 존재로만 묘사한 것은 그의 시야의 한계(Fairhall 182) 때문이 아니라 그의 창작 의도에 따른 관점의 조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분변강박증적 문체는 자신을 정화자(Katharsis — Purgative: *CW* 149)로 인식한 태도를 구현하는 것이며 동족의 정신적인 해방을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만일 그 말들을 삭제한다면 내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은 어떻게 되겠 습니까? 나는 그 말들을 그대로 두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그대로 정확히 도덕사의 한 장을 작성할 때 나는 비로소 내 조국의 정신 적 해방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Letters* I, 62-63)

‘정신적 해방’은 그의 비판의 도덕적 지향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사이클롭스” 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블룸이 승천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부당함(*U* 12. 1467-74)에 대한 그의 용기있는 도전이 승리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그가 회원한 뉴블롬살렘이 ‘유태인, 회교도, 모든 인종의 결합. 모주 군들과 수종걸린 협잡꾼들의 애국심은 더 이상 없고... 자유로운 평민의 나라에서... 인종이 섞여 있고 섞여서 결혼하는(*U* 15. 1686-99)’ 나라였던 것은 이민족과 영국에 대해 적대적이면서도 동족에게 도리어 분노를 사는 민족주의에 대한 대안의 암시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이 도덕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향을 암시하는 것들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기의 암시들이 제시되는 통로가 모두 회화이기 때문이다. 회화는 그가 무엇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불분명하게 만드는데, 블룸에게는 그 영웅적인 면모가 회화되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며 뉴블롬살렘의 비정치성과 무역사성은 ‘민족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갖고 있다(*CW* 154)’는 조이스의 선언적인 진술과 앞장에서 밝힌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모두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화를 사용한 이유는 교조적인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이 정통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담론에 얽혀 있음을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블룸의 승천이나 뉴블롬살렘의 희망이 진지한 표명일 경우 그에게서도 민족주의와 같은 교조적인 주장의 혐의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분법의 고리에 얽혀들지 않은 것은 그의 양가병존적(ambivalent) 세계관의 요체이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회화나 문체의 해학성은 그의 비판의 의도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문명의 발전 과정을 지체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잘 닦아 놓은 거울에 아일랜드인들이 그들 자신을 잘 비추어 보도록’ 하려는 비판의 의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적어도 무엇이 나쁜 것인지는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펴 본 대로 그는 민족주의의 선전 이념이 이율배반적으로 동반하는 종족 차별의 가혹성과 제국주의적 속성 그리고 문화적 주체 의식의 허구성을 포착하여 민족주의의 목적론적 역사 인식을 붕괴시켰다. 더군다나 그의 분변강박증적 문체가 지닌 해학성조차도 동족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장치이므로 거기에서 오히려 그의 비판의 진지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비판 속에서 자신이 민족에 대해 품은 열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비판의 태도는 동족의 각성을 촉구하려는 창작 의도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그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반향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그의 민족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는 그러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성과 역사 의식을 구현하였고 그러한 태도로 평생 ‘민족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민족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켈트적 상상력을 주체적으로 정의한 작가(Nolan 3)이자 주체적 문화 의식의 전형(Smyth 112)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5. 맺는 말

본 연구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제반 양상을 거론하면서 그것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적 태도를 검토하였다. 비록 그의 정치적 관점에 관해서는 그의 무역사성과 비정치성이 비평적 숙어로서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족주의에 관한 한, 그는 비판적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다. 그는 민족주의를 본질적으로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선정적인 애국심 등과 연계된 이념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비판이 통렬하기는 해도 해학성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사한 분변강박증적 문체는 해학적 효과를 통해 비판에 통패함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비판의 의도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가 민족주의의 대서사적 작업을 똥이나 오줌 등 배설물에 자주 비견한 것은 대상간의 현격한 격

차를 이용하여 비판의 통쾌함과 해학적 효과를 동시에 성취함으로써 그의 비판에 대한 동족(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려는 장치였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조이스 자신의 민족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톨릭대)

Abbreviations & Works Cited

SH: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1944.

D: Dubliners(1914). Ed. Robert Schol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PA: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1916).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U: Ulysses(1922). Eds. Hans Walter Gabler *et al.* New York: Vintage Books, 1986.

FW: Finnegans Wake(1939).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CW: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Cornell UP, 1959.

Letters I: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Letters II: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66.

Bowen, Jack. "Ulysse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s. Zack Bowen and James F. Carens. London: Greenwood Press, 1984, 421-557.

Brennan, Timothy. "The National Longing for Form." *Nation and Narration*. Ed. Homi K. Bhabha. London: Routledge, 1990, 44-70.

Bush, Ronald. "Monstros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Postcolonial Diaspora: *The Satanic Verse, Ulysses, and Frankenstein*." *Borders, Exiles,*

- Diasporas*. Ed. Elazar Barkan and Maire-Denise Shelton. Stanford: Stanford UP, 1998, 234-56.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UP, 1995.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UP, 1993.
- Kelly, John S. "The Fall of Parnell and the Rise of Irish Literature: An Investigation." *Anglo-Irish Studies*. Vol. II. Ed. P. J. Drudy. Bucks: Alpha Academic Books, 1976, 1-23.
- Kiernan, V. G. "The Emergence of a Nation." *Nationalism and Popular Protest in Ireland*. Ed. C. H. E. Philpin. Cambridge: CUP, 1987, 16-49.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5.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Renan, Ernest(1882). "What Is a Nation?" Trans. Martin Thom. *Nation and Narration*. Ed. Homi K. Bhabha. London: Routledge, 1990, 8-22.
- Smyth, Gerry. *Decolonization and Criticism: The Construction of Irish Literature*. London: Pluto Press, 1998.
- Snead, James. "European Pedigrees/African Contagions: Nationality, Narrative, and Communitary in Tutuola, Achebe, and Reed." *Nation and Narration*. Ed. Homi K. Bhabha. London: Routledge, 1990, 231-49.
- Wells, H. G(1917). "James Joyce." *James Joyce: The Critical Heritage*. Ed. Robert H. Deming. Vol. 1. London: RKP, 1970, 86-88.

Abstract**Celtic Twilight and Cul Toilette: Joyce and Nationalism**

Lee, Ihn-ke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Joyce's attitude against the nationalistic notions of the Celtic twilight. In his terms, they are characteristic of anti-Semitism, imperialism and cultural provincialism. He is harsh with nationalism. But peculiarly in his criticism he often superimposed excrements on the professed high sentiments of nationalism. With such superimposition did he work out comic effect. The comedy enables us to feel convinced with mirth of his criticism when the nationalistic movement was criticized as 'cultic twalette' that implicates the Celtic twilight overlaid with cul toilette. Therefore, by criticizing nationalism with the stylistic use of superimposition, he led his contemporaries (or us readers) to the realization of their aberrant notions of nationalism. That is why we can acknowledge his own nationalism.